



미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및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

-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미국 신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 -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적기 추진 -
- '25년에도 최대 91.3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PF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
- 미국 신 정부 출범으로 어려움 예상되는 산업 지원, 밸류업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강화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증시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1.14.(목) 07: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경제수석 박춘섭,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세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¹⁾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²⁾인 반면,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³⁾을 보이고 있다.

1) 美 국채 금리(% 10yr, 전일 기준) : ('24.10말)4.300 (11.5)4.284 (11.6)4.270 (11.7)4.431 (11.8)4.325 (11.12)4.304 (11.13)4.427
달러인덱스(전일 뉴욕 종가 기준) : ('24.10말)104.0 (11.5)103.9 (11.6)103.4 (11.7)105.1 (11.8)104.5 (11.12)105.5 (11.13)106.0

2) 국고채 금리(% 10yr) : ('24.10말)3.100 (11.5)3.073 (11.6)3.134 (11.7)3.098 (11.8)3.049 (11.12)3.014 (11.13)3.067
회사채 금리(% AA-) : ('24.10말)3.503 (11.5)3.491 (11.6)3.529 (11.7)3.492 (11.8)3.461 (11.12)3.467 (11.13)3.501

3) 코스피 : ('24.10말)2,556.2 (11.5)2,576.9 (11.6)2,563.5 (11.7)2,564.6 (11.8)2,561.2 (11.12)2,482.6 (11.13)2,417.1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 미국 대선 이후 신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도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⁴⁾, 최대 53.7조원 규모의 PF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⁵⁾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최대 10조원), 신보 P-CBO 프로그램 (2.8조원), 금투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최대 1.8조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최대 3조원)

5)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최대 2.7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최대 1조원), 非주택 사업자 보증 등(최대 10조원)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최 신 (shin@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상주 (hipotes@fss.or.kr)